

성령의 탄생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

우리의 제목인 "성령으로 태어남"과 첫 구절에 등장하는 "거듭남"이라는 문구는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삶의 행실과 관계없이 죽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이 하늘의 상급을 보장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매우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남" 또는 "거듭남"의 의미에 관한 다른 세부 사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에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더 배우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1,2)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특징, 즉 성령, 즉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하게 합니다. 이 신성한 마련의 특징은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는 아버지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통치할 사람들은 먼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새 생명의 특징 중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바람의 힘을 예로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이와 같으니라."

8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4절)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6절) 니고데모가 이 설명을 이해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생명과 관련된 탄생에 대한 생각은 상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자궁에 다시 들어가서 문자 그대로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유가 사용됩니다. 탄생 또는 탄생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삶에 대한 생각을 즉시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단순히 새로운 삶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삶과는 매우 다른 삶으로, 그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됩니다. 요한일서 3:2

성령의 탄생은 거듭나기 위해 문자 그대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신약의 여러 저자들은 주님께 헌신한 신자들의 마음과 삶에서 성령의 사역의 이러한 측면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자세하게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일부 성경 번역본은 저자들이 염두에 둔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육신에 있는 동안에도 영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잘못된 견해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오류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용된 그리스어에는 임신과 출산을 모두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겐나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문맥에 따라 출산 또는 출생이 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새 생명이 탄생하는 완전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데 사용된 헬라어는 '겐나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낳다'라는 단어는 39번 사용되었으며, 모든 경우에 '낳다'로 올바르게 번역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명히 begat가 올바른 번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고 사실이 아닌지! 이 성경의 예는 자연적인 인간 영역에서는 남성이

잉태하고 여성이 출산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둘 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데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그리스어 "겐나오"는 같은 구절에서 "태어나다"와 "태어났다"로 두 번 번역되어 사용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기를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18)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번역자들은 두 경우 모두 "태어났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유일한 명백한 이유는 번역의 문구를 덜 반복적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활로 태어난 지금-부활의 탄생

탄생 은유의 전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 생명이 탄생하려면

먼저 수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배아에 영양을 공급하고 발달시켜 적절한 시기에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임신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부활 안에서 새롭고 더 높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완성된 사역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짧은 교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세부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읽습니다. (야고보서

1:18) 이 구절은 출산이 육체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정신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썩어질 씨로 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는 영원히 살아서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겐나오"는 "태어났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베드로가 "씨"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출산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출산 과정에서 탄생이 아니라 씨앗에 의해 성취되는 것은 출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도는 새 생명의 시작, 즉 잉태를 말하는 것이지 탄생을 통한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육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옛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21)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비추신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사도들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오심을 언급하실 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26, 16:13)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며,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성령이 신자의 삶 속에 직접 들어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고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한 번 은혜를 받으면 항상 은혜 안에 있다"는 잘못된 제안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우리에게 참된 생각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신자의 마음과 정신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더 생각해 봅시다. 잉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씨앗을 받아들이기 위한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성령 잉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통해 약간의 위로와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얻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항복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생식 능력을 진정으로 받기 위해 준비되기 위해서는 신성한 뜻과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충동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수가 신성한 차원에서 불멸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마련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바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말씀, 즉 씨앗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이러한 측면은 신자의 생각에 대한 그분의 생각의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창조주는 자신의 명령에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침범하지 않고 관련된 사람의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새로운 마음의 발전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원래의 창조와 인간이 거주할 땅의 준비와 관련하여 물 위에 움직였을 때는 그분의 권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통치할 사람들을 낳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능을 행사하여 이들에 관한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채우셨고, 자신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도와 도움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섭리로 말씀과 접촉하게 된 개인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표현하신 대로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굴복할지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소중한 말씀에 "영광과 존귀와 불멸"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많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로마서 2:7) 그분은 이러한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으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계시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4) 성령께서 예수님께 영감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2,3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약속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의 세상을 위해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섭리, 즉 베드로가 '회복' 또는 지상에서의 생명 회복으로 묘사한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창세 이래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만물이 회복될 때"를 예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기쁘고, 이러한 지상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고대합니다. 사도행전 3:20,21

그러나 성경의 하늘 약속에 도달하려면 항복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영적 탄생으로 이끄는 길은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마태복음 7:14)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24) 우리는 또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바울의 권고를 기억합니다. (로마서 12:1) 이러한 하늘 부르심의 조건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신실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통치하고 그와

함께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할 것이라는 약속이 그 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4,6; 창세기 12:3; 22:18; 갈라디아서 3:8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가족의 일원이 되고, 다가오는 왕국에서 남은 인류를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그 신성한 건축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온 세상의 구속자이자 구세주로 주신 그분의 사랑은 이들에게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합니다. (요한 3:16,17) 인류를 대신하여 고통받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고귀한 생각을 발견하고 그것에 의해 움직인다면 바울처럼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과 그를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14,15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영감으로 영감을 받은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한 우리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집과 신성한 본성에 대한 감동적인 약속은 이전처럼 우리와 동떨어진, 단지 하나님의 계획의 흥미로운 특징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에 생명을 주는 영향력이 됩니다. 하느님께 순복함으로써 그 씨앗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낳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야고보서 1:18

새 생명의 기적

오직 신만이 나무를 만들 수 있듯이 모든 생명은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적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기적을 목격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모가 그 아이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설계하신 조건에 따라 지구가 결국 인간 피조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순응했을 뿐입니다. (창세기 1:28).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이며, 여기에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된 특권입니다.

어떤 기적은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떤 기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죽은 오빠를 향해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부르셨을 때 죽은 자가 "나왔다"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43,44) 그러나 우주 전체에 나타난 창조 기적은 성취를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령 잉태와 탄생의 기적도 오랜 기간에 걸쳐 펼쳐집니다.

생육의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기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서 숙고하고 독자의 선택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되는 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으로 채우실 수 있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게다가 자신의 마음이 로봇처럼 강요된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지혜로운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생식의 씨앗의 마음에 들어갈 준비를하기 위해 삶의 환경을 형성하는 데 작용하지만 각자는 이러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부드러움으로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체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므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영의 잉태를 준비하는 이 일은 잉태의 씨앗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준비된 것처럼 기적적인 일입니다. 모든 신생아의 탄생이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이 특징에서 하나님의 역할의 모든 측면은 기적이었으며 지금도 기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안에 표현된 하느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준 사람들의 경우, 영생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처리를 받는 모든 사람은 주님께

계속 충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지식 속에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0

성경은 잉태와 탄생의 모습에 따라 배아의 새 생명()이 성장함에 따라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짐을 밝힙니다. 우리의 새로운 영적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자랍니다. 영적 성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신성한 형상에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평화, 기쁨, 오래 참음,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열매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갈라디아서 5:22,23; 벧후 1:5-7) 바울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 하나님을 형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23,24

새 생명이 탄생할 준비가 될 정도로 발달하면 우리의 부패한 몸은 죽음으로 들어가고,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고전 15:53,54) 여기서 하나님의 영, 즉 능력이 더욱 발휘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거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상징을 사용하자면 성령의 탄생을 가져오는 데 사용된 이 강력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를 믿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놀랍고도 위대함'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영예의 자리에 앉히신 것과 같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19,20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부활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바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8)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강력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먼저 태어나고, 말씀을 먹음으로써

"성도들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될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12) 신성한 능력이 이들을 하늘의 생명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썩지 않고 불멸하는 천상의 몸, 즉 하늘의 몸이 주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40-44,53-58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받을 아담의 종족 모두가 하늘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살기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3, 마태복음 4:17)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랫동안 약속된 아버지의 왕국에서 하늘의 통치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느 왕국이나 정부에는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현 시대의 참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서 영으로 변화되는 이 위대한 변화()를 가장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 즉 그의 참된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첫 번째 부활'에서 이 새로운 탄생을 경험합니다. (요한계시록 20:5,6) 그러면 회복된 인간의 생명인 하나님의 회복 생명에 대한 약속이 하늘에서 땅의 모든 가족에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3:14-17; 요한계시록 21:2-5